



4면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본격 시작

전주매일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윤 2월 14일) 제32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농축산식품 예산 도, 1조5904억원 신청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위해... 지난해보다 536억원 증액 6대 전략 추진 체계 확립에 초점... 스마트팜·로컬푸드 등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총 200개 사업, 1조5,904억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6억원, 3.5%가 증가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수요 신청은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농정수요 대응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변영에 필요한 분야를 중점 검토·발굴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전략 추진 체계 확립에 초점

을 맞춰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위해 경영실습 농장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등 16개 사업에 1,059억원을 신청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등 28개 사업에 1,109억원을 신청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스마트농자 R&D, 동물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13개 사업에 930억 원을 신청함으로써 그린바이오 핵

심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신산업 육성 및 기반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기관리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연(스마트팜) 확대, 맞춤형 농지 지원, 가족농노 처리 지원 등 82개 사업에 4,048억원, △농촌고용인력 및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41개 사업에 7,760억원, △농촌융복합 네트워크 조성, 농촌축제 및 유학 지원 등 20개 사업에 998억원을 신청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달성, 농가소득 6000만원 진입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제출했다"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 성장과 농민행복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역에 수소버스 보급 확대되나

도, 산업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선정 수소버스 75대 배정... 공모 선정 6개 시도 중 두번째로 많아

전라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 국비 5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전북지역에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은 수소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280억 원을 들여 총 400대 규모의 수소버스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400대의 수소버스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연장(5년 50만 km → 9년 90만 km)되고 유지보수 서비스(운송사 소모품 지원 등 현대차 제공)를 제공한다.

앞서 전북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소버스 수요가 있는 4개 시군

(전주, 익산, 완주, 부안), 26개 버스운수사, 5개 수소충전소 사업자 및 4개 수소공급사 등 총 40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고, 발표평가 등을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돼 수소버스 75대(저상버스 50대, 고상버스 25대)를 배정받게 됐다. 이는 공모에 선정된 6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선정 이유로 도내 수소상용차 충전기반이 확보된 점과 충전소 확충 및 수소공급계획 등 전북도의 수소차량 보급에 대한 의지가 높기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지역에는 기존 운행 중인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 44대와 더불어 올해 연말에는 94대의 수소시내버스(저상버스)가

운행되며, 25대의 수소고상버스도 기업의 출퇴근 버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수소버스 확대가 도내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택립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전국 유일 수소상용차 제조공장이 있는 곳이며,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전북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전주 삼천, 전주 평화, 완주 봉동, 부안 행안)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개소의 수소상용차용 액화충전소와 1개소의 기체충전소가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완주군 수소공급기지가 6월 준공 예정으로, 1일 24분의 수소생산과 도내 전역으로의 원활한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열린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김관영 도지사(2위)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도내 청년 치유·힐링 공간 '문 열다'

전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 본격 운영 중증정신질환 예방·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내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2위)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

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뒀다.

중증정신질환 예방·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프로그램은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숨겨왔던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전문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며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행복주택 공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병원, 새만금잠버리 협력병원 지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잠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학교법인 원광대학은 8월 1~12일 새만금 잠버리 부지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잠버리 협력병원으로 원광대학교병

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원 협력병원으로서 잠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잠버리 의료시설에 인력을 지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

터 및 권역의상센터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진료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긴급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원광대병원의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을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